

# 진안형 먹거리 정책 본격 추진

### 진안군 먹거리 비전 선포식·먹거리위원회 출범식 가저 군민 건강한 먹거리 공급·농가 소득 보장 시스템 구축 '최선'

진안군은 5일 군청 강당에서 진안군 먹거리 비전 선포식 및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정춘성 군수를 비롯한 진안군의회 이미옥 부의장 및 군의원, 전용태 도의원, 진안교육지원청 관계자, 각 농협 등 관계 기관·단체장과 군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형 먹거리계획 추진 경과보고 및 최종보고에 이어 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의 진안형 먹거리계획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커뮤니티링크 협동조합 나영삼 대표의 최종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최종 보고에서는 관계시장 창출, 기획생산 체계 구축, 공공형 운영 체계 확립,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며 △건강한 군민, △지속가능한 농업, △농·도 순환도시 진안이라는 진안형 먹거리계획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위촉된 진안군 먹거리위원회 위원은 로컬푸드 생산농가를 비롯해 가공·유통·복지·경제·식·농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각 분과별



진안군은 5일 군청 강당에서 진안군 먹거리 비전 선포식 및 먹거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에 나선다.

활동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과 발전을 위한 먹거리 정책 발굴·제안 및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안형 먹거리계획의 핵심 가치가 담긴 진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선언문의 채택 및 낭독을 통해 먹거리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되새기고 군민이 지향하는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 실현의 의지를 다졌다.

정춘성 군수는 "군민이 행복하기 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군민이 손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남은 먹거리를 외부로 공급해 중소농가에 예측 가능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며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군민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군 먹거리 정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탄력'

### 무주군, 무주읍·안성면 사업 추진 국비 3억원 각각 확보

무주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올해 국가예산이 확보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무주읍과 안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한 국비 3억 원이 각각 확보되면서 올해 분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추진될 무주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당초 3,000㎥/일 하수처리시설에서 3,700㎥/일 용량으로 증설하게 된다.

안성면 일원에 증설될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99억4천여만 원을 투입해 당초

1,200㎥/일 하수처리 용량에서 1,700㎥/일 용량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 여유용량을 확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이들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들은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유입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오는 2025년 증설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들 지구에 수질이 보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개선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공모 선정

무주군이 2023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정보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총사업비 8억3천3백만 원(국비 5억 원 확보)을 들여 무주읍 읍내리 3개 마을(운교, 대교, 남천)을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가로등,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

동약자 보호시스템 등 마을주민의 안전과 편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을 앞두고 국토부 자문기관 HUG와의 업무협약(컨설팅) 4회, 3개마을 대표(이장) 및 시장 상인회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2회, 유관기관(무주 119안전센터)의 업무협약 등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로써 무주읍 주민들에게 정보 및 주민편의 시설이 확충되면서 주민생활 편리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국가예산 신규 사업비 1461억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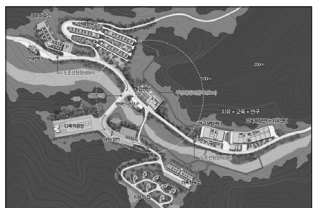
### 민선8기 공약·지역현안사업 추진 동력 마련

진안군은 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비 1,461억원을 확보해 균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5일 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비 확보액은 전년도 대비 241억원(16.5%) 증가한 1,461억원으로 각종 현안의 신속한 해결과 군 미래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의 분야별 규모는 △농림·축산 분야 19개 사업, 169억원 △지역개발 분야 6개 사업, 321억원, △문화·관광 분야 9개 사업, 199억원 △환경·산림 분야 등 7개 사업, 743억원이다.

신규 주요사업은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사업(40억원), △상전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51억원), △양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



국립 지역권 사업 배치도

업(98억원),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450억원), △진안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121억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301억원), △진안군 농촌협약(41억원), △신덕 하수관로 정비사업(16억원) 등 571억원을 2023년도 국·도비로 확보했다.

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춘성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10~11월 국회 단계까지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공조와 예산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국회단계에서도 진안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며 노력한 결과 △변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8.5억원), △신덕 하수관로 정비사업(16억원), 등을 추가로 증액·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해 진안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 달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자활기업 '나눔푸드', 2022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진안군 자활기업 (유)나눔푸드(대표 김치훈)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우수자활기업 공모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우수자활 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자활기업 선정을 위해 전국 자활기업 총 37개소가 신청했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유)나눔푸드를 포함한 10개소가 우수자활기업으로 최종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인증서와 현관,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유)나눔푸드는 진안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으로 시작해 2007년 자활기업으로 출범해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꾸준한 기업 성장을 위한 신사업 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유)나눔푸드는 유료급식, 출장 뷔페, 흥삼제품 판매, 식재료 유통 등의 사업운영으로 최근 3년간 연간 19% 이상 매출이 상승했고, 사회적가



치 창출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김치훈 (유)나눔푸드 대표는 "자활기업 출범 15주년이 되는 해에 우수자활 기업에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준 진안군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 실시

장수군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 비용을 50% 지원하는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을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수요조사에 의해 선정된 5기종에 한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올해 한국농기계공급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타 실과에서 지원하는 기종 제외)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중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기계를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에 한하며 영농규모, 영농경력,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반값 농기계 확대 공급사업은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많은 농가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농협, 전 조합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가 5일 무주농협 조합원(3,600명)에게 단체상해보험인 장제비 플랜 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조합원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장제비 플랜은 조합원이 상해사망, 질병사망(만 79세 이상 제외),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소정의 장제비를 지급하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이다.

이번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1년간)이다. 사망시 300만원의 보험금(장제비)이 지급하게 된다.

곽동열 조합장은 "조합원의 고령화 및 농작업사고로 인한 농기계·교통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농업에서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